



국내에서 스마트폰 이용이 대중화되고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출시되면서 일상이 편리해졌다. 특히 2102년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사로잡은 애플리케이션이 유독 많이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예약·레슨·프리포즈, 손 안에서 OK...일상이 스마트해졌다

2012년 앱 전성시대...아이디어로 눈길 잡은 분야별 최고 앱

국내 스마트폰 인구는 3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등장했다. 몇몇 인기 앱은 1000만 명 이상 다운로드 받아 '텐 밀리언 셀러'에 올랐다. 앱 전성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2012년, 독특한 아이디어로 스마트폰족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앱들을 정리했다.

다양한 캐릭터 모닝콜로 아침을 열고 앱과 함께 조정하고 골프스윙도 교정...데이트 로맨틱 사랑 고백 도우미로 자녀 위치추적에 음성대화 앱도 화제

★ 하루를 스마트하게-라이프 스타일 앱

- 모닝콜의 고정관념을 깬 '알람런'

뻔한 소리의 휴대전화 알람이 지겨웠던 사람을 위한 상품. 꼬꼬댁과 다크냥 등 귀여운 캐릭터가 내는 독특한 사운드가 매력이다. 스토리에 따라 알람몬에게 먹이를 주는 등 특색 미션을 수행해야 알람이 꺼진다든 점도 이채롭다.
- 희식, 데이트정소 가족모임 다 맡겨... '예약왕 포인'

전화로 식당 예약을 하는 것도 옛날. 손가락 터치 몇 번만 하면 곧바로 식당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왕 포인'은 전국 3만여 개 식당 예약이 가능하다. 장소, 날짜, 인원 등의 조건에 맞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이름과 연락처 등도 가입할 때 한번만 입력하면 된다.

★ 스마트폰으로 운동도-스포츠 앱

- 좀비와의 추적 레이스, '좀비스, 런!'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을 위한 앱은 무척 많다. 그중 기발한 발상과 유머러스한 설정으로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좀비스, 런!'(zombies, run!)이다. '좀비스, 런!'은 다급한 목소리의 영어 라디오 방송, 실감나는 음향 효과를 통해 무시무시한 좀비의 추적에서 도망가는 상황을 연출해 이용자들이 스틸 넘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골퍼의 로망을 실현, '아이스윙 골프'

골퍼들은 자신의 스윙폼을 눈으로 보고 분석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사용자의 스윙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분석해주는 스마트폰 앱들이 인기가 높다. '아이스윙 골프'(iSwing Golf)도 그중 하나. 자가 진단 촬영이 가능하고 슬로모션을 통해 자신의 스윙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기 도구 등도 제공한다.
- 소중한 시간 보내기-엔터테인먼트-사진 앱

● 데이트를 '러브 액추얼리'처럼 로맨틱하게 '그

루노트' 종이 보드에 글자로 써 사랑을 고백한 영화 '러브 액추얼리'의 한 장면. 이처럼 로맨틱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이제 스마트폰 전광판 앱을 이용하면 된다. '그루노트'는 이모티콘과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 앨범에서 불러온 사진을 스티커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일상을 애니로 남긴다, '페이퍼 카메라'

카메라 앱은 정말 많지만 '페이퍼 카메라'만큼 독특한 앱은 드물다. 이 앱은 사진을 카툰이나 그림처럼 꾸며준다. 유저는 카툰만화와 스케치, 코믹북, 하프톤, 누아르풍, 네온효과 등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준 사진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 앱으로 이런 것도?-아이디어 앱

- 부모 안심뷰터 악마앱 끝판왕까지 종류도 다양한 '위치추적'

'악마앱'으로 불렸던 '오빠 밍지'에서 시작한 위치추적 앱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올해에는 거의 악마앱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앱도 등장했다. 이 앱은 상대 위치정보는 물론이고 상대방 전화번호와 저장된 이름 등 상세 통화내역까지 알려준다. 자연 사생활 침해와 범죵악용 우려도 있다. 이와 달리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해 자녀들의 안심한 통학을 책임여주는 순기능을 하는 앱도 있다.
- 본심을 걱정 덜어주는 '여기요'

고가의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것만큼 막막한 일도 없다. '여기요'는 이럴 때 유용하다.

다른 전화를 이용해 분실한 휴대전화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분실한 전화에서 사이렌을 울리거나 기능을 잠글 수도 있다. 원격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받아볼 수도 있다.

- 금속탐지서 소음, 진동까지 측정하는 '스마트 툴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각종 측정이 가능한 맥가이버같은 앱이다. '스마트 툴스'(Smart Tools)는 15가지 도구를 하나의 앱에 모았다. 거리 높이 등 기본적인 물리 측정은 물론 나침반 기능에 금속 탐지,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손 안의 재미-소셜 네트워킹-게임

- 손가락 아닌 말로 SNS 즐기자, '체키투'

'그 나뭇잎의 그 밥'인 메신저에 식상했다면 무전기 기능과 1인 라디오도 들을 수 있는 '체키투'를 주목하자. 메신저의 문자 대화를 음성으로 가능하게 해 마치 무전기를 사용하는 듯한 재미를 준다. 또 1인 라디오 '타이푼'으로 유저들이 생산한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 내 손바닥 안의 낚시터 '피쉬 아일랜드'

'모바일 낚시게임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깬 앱이다. '피쉬 아일랜드'는 리듬에 맞춰 터치를 하면 돼 낚시노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250여종 3D그래픽 물고기가 등장하고 호주와 그리스,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별 어장을 방문할 수 있는 재미가 있다.

글로벌 앱 시장, IT 한류는 아직 미풍

컴투스 등 일부 모바일 게임업체 전선

2012년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대표되는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면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의 앱들은 어떤 호응을 얻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국산 앱들은 많지 않다. 그래도 몇몇 모바일 게임들은 섣달순에 추진 등 국내 시장에서 약재를 만나자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컴투스는 올해 5개의 게임을 전 세계 '텐밀

리언셀러'(1000만 다운로드) 게임에 합류시켰다. 2월에는 퍼즐게임 '슬라이스 잇!', 9월 소셜 네트워크 게임(SNG) '타이워킵'이 1000만 다운로드 기록을 세웠고, 10월에는 '홀러맨' 시리즈가 200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다. 또 12월에는 디펜스 게임 '타워디펜스'와 캐주얼 네트워크 대전게임 '몽키베들'이 나란히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게임빌도 '제노니아5' 등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해 3월 회사 전체게임 누적 다운로드 수

가 1억 건을 돌파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2억 건을 넘었다. 최근도 월 1000만 건 이상의 신규 다운로드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2012년 글로벌 시장에서는 역시 SNS 관련 앱들이 강세를 보였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인기 서비스는 올해도 어김없이 무료 앱 부문 상위권을 점령했고 사진을 기반으로 한 SNS인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 등도 인기를 끌었다. 김명근 기자

■ IT 뉴스 브리핑



이통 3사, 문자·채팅 통합 서비스 출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 3사가 문자, 채팅, 파일공유를 통합한 신개념 통신서비스 'RCS(Rich Communication Suite)'를 '조인'(사진)이라는 이름으로 26일 출시한다. RCS는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통합 커뮤니케이션 도구다. RCS를 상용화한 사업자의 가입자는 통신사나 국적에 관계없이 채팅, 파일 전송, 통화 중 실시간 영상 공유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조인은 26일부터 애플리케이션(앱) 상태에서 조인 앱을 내려받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조인은 주소록에서 바로 문자나 채팅으로 말(5000자)을 걸거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소통할 수도 있다. 음성통화 중에 상대방에게 주변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고, 동영상·사진·위치정보, 기프티콘 등 첨부파일을 최대 100MB(메가바이트)까지 전송할 수 있다. 특히 조인 앱을 깔 수 없는 피쳐폰(일반 휴대전화) 이용자와도 대화할 수 있어 '카카오톡' 등 기존 메신저 앱이 동종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들만 연결해주는 것과 다르다.

올해 최고 인기 미국 주식은 '애플'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를 끈 미국 주식은 애플로 조사됐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11월까지 휴대레이딩시스템(HTS)과 전화주문을 통한 국내 투자자의 대금을 분석한 결과 애플이 미국 전체 거래대금의 22.2%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건강보조식품으로 잘 알려진 허벌라이프가 2위, 가정용 오락기기나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 팀스 테크놀로

지, 화장품 판매업체 누스킨 엔터프라이즈, 컴퓨터와 반도체 설계·라이선스 판매업체인 램버스 순이었다. 또 미국 장외거래 시장에 상장한 국내 전자자동차 생산업체인 레오모터스가 8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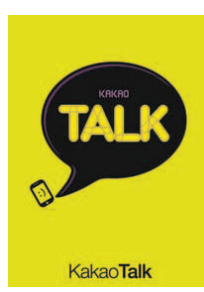
게임업체들, 잇따라 연말 사랑나눔 게임업체들이 연말을 맞아 소의 계층 나눔 활동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넥슨은 지난해 아프리카 브룬디에 도서관 '작은 책방 해외 1호점'을 개설한 데 이어 올해에는 네팔 다델두라 지역에 '작은 책방 해외 2호점'(사진)의 문

을 열었다. NHN 한게임은 네이버의 기부 프로그램 '해피빈'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기부한 '콩'이 1000만개가 모이면 공익단체에 5000만원의 기부할 계획이다. 엔씨소프트는 야구단 NC다이노스의 연구지원 장학 지역에서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을 통해 이달 초 창원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3억원 상당의 자전거를 기증했다. CJ E&M 넷마블은 파주 지역 독거노인 세대에 연탄 4000장을 배달하고, 엄마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아기 용품을 대신 제작해주었다. 네오위즈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기업 자원봉사 프로그램 '오색오감'을 실시했다.

인스타그램, 조건 변경하러다 집단소송 페이스북이 인수한 사진공유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이용자들이 올린 사진을 별도 보상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계약 조건을 변경하러다 집단소송을 당했다. AFP와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21일(미국 현지시간) 제기된 이 집단소송에서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의 서비스 계약 조건 변경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톡!톡!... '카톡' 원맨쇼

상반기엔 음성통화, 하반기엔 게임으로 화제 중심



2012년 한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시장은 '카카오톡'(사진)으로 시작해 '카카오톡'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은 국내 스마트폰 이용 인구의 두 배인 7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국민 모바일 서비스'라는 애칭에 걸맞은

인기를 누렸다. 2012년 카카오톡은 모바일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도 크게 강화됐다. 다른 앱 제작사들이 카카오톡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놨다. 상반기 가장 큰 이슈였던 '모바일 인터넷 음성통화'(m-VoIP)도 카카오톡이 발단이 됐다. 카카오는 5월 카카오톡의 m-VoIP인 '보이스톡'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이 문제가 됐다.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는 m-VoIP가 음성통화를 주수익원으로 삼고 있는 이동통신사와 갈등이 예견되면서 한국 이외 지역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면서 6월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후 서비스에 대한 찬반양론은 더욱 격화됐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망중립성' 논란이 벌어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애니팡'과 같은 카카오톡의 게임 앱이 화제였다. 7월 문을 연 카카오톡의 '게임하기' 서비스는 경직된 모바일 게임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애니팡'은 서비스 시작 두 달 만에 1700만 다운로드, 일일 사용자 1000만 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지하철과 버스에서 많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 게임을 즐겼고 '게임오버'라는 게임 내 여성의 목소리는 개그 소재로 활용되는 등 사회적 현상까지 나타났다. '게임하기'에는 '애니팡'에 이어 '캔디팡', '이리브 커피', '드래곤플라이트' 등의 게임이 론칭돼 잇달아 성공을 거뒀다. 특히 기존부터 게임을 즐기던 젊은 세대 외에 30대와 40대, 50대 등이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등장했다. 2013년에도 이런 카카오톡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디지털 콘텐츠 장터인 '카카오페이 지' 등 새로운 플랫폼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인기클리 베스트 3

자료: 네이버

연예	시청률 대박 '선덕여왕', 3년만에...충격 카라 한승연, 악플러에 분노 "현실 직시 어느쪽?" 빅뱅부터 이하이까지, YG-MBC 화끈하게 풀었다!
스포츠	레드넵 감독 폭로 '보신와, 나를 불면하게 만들었다' 포르투갈 브라가, 총액 27억원에 윤빛가람 러브콜 크루이프 "바르사-레알 격차, 좋지 않아"
사회	위험한 중2-중3병 법원 '복부 수선사 탄압'반면 통일교인 난민 인정' 라마다호텔-입주 롤살롱 '아리송한 소송'
경제	4.9년치 월급 고박 모아야 서울 30평 전세 '너도나도 1위 광고'..5개 구인구직 사이트 제재 '삼성이라기에 믿었는데 준다던 보험금 다 안 줘'
생활 문화	운동해도 살 안 빠지는 이유는? '이게 뭐야' 남자-구경꾼만...술로대항 작전 실패 조기 언어능력이 분노조절 열쇠

인기 동영상

고양이 안부 인사